

2022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기획 연구

**남성 섹슈얼리티 현실 말하기**

: 지배적 남성성과 불화하는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 제 출 문

수 신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이 보고서를 2022 청년허브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남성 섹슈얼리티 현실 말하기: 지배적 남성성과 불화하는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의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 연구원 : 이한, 김태환, 이풍현

# 목 차

## 0. 들어가며

### 1. 연구 개괄

- (1) 연구방법
- (2) 심층 면접 참여자 표
- (3) 심층 면접 참여자 특성

### 2. 심층 면접 분석

- (1) 달콤씹쓸한 연애
- (2) 남성들의 섹스 말하기

### 3. 개인적이면서 정치적인 섹슈얼리티와 관계

- (1) 내게는 너무나 무거운 섹슈얼리티와 관계
- (2) 새로운 주체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 4. 나가며: 연구자의 말

## 0. 들어가며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이하 남함페)은 남성과 남성성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페미니즘 공동체로, 남성연대에 균열을 내고 함께 페미니즘을 공부, 실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름 때문에 자주 오해를 받지만 남성만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정체성의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2017년 페미니즘 독서 모임으로 시작하여, 2018년부터는 그간 공부했던 책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는 오픈 세미나를 열었고 성추행 2차가해 규탄집회를 개최하는 등 조금씩 활동영역을 넓혀왔다. 2019년, 남함페 활동가 이한은 서울시 NPO 지원센터의 연구활동가 지원사업 활력향연을 통해 <2019 남성 페미니스트를 찾아서 : 페미니즘 운동 내 남성의 역할과 활동 고민>이라는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9명의 남성 페미니스트를 만나 페미니즘을 접하게 된 계기, 페미니즘 실천과 어려움 등에 대해 물었다. 2020년에는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을 받아 앞서 연구활동을 남함페 단체 차원에서 확대하여 진행했다. 총 11명의 페미니스트를 추가 면접했고 연구자료집 <남성 페미니스트를 발견하고 이야기하고 연결하다>를 썼다. 이 두 자료는 남함페 활동가 김선해, 이한의 손을 거쳐 2022년 단행본 <페미니즘, 남성을 조립하다>로 재탄생 되어 발간 됐다. 남함페는 이 작업을 통해 미약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하고자 했다. 이는 그간 수많은 페미니스트가 만들어낸 남성연대의 생생한 균열을 기록하기 위함이었으며 동시에 더 많은 남성을 페미니즘으로 초대하기 위한 활동 영역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남함페 활동은 느리고 미약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남성연대에 균열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믿는다. 지금도 그 믿음에 변함 없지만 우리의 활동에 비해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는 거대해져만 가는 듯 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뉴스는 마치 이 폭력과 차별의 굴레가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그 와중에도 동시대 페미니스트를 가장 경악하게 했던 일은 단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일 것이다. 가해자는 각종 방법으로 여성을 협박하고 속여 그들의 성을 착취하는 등 각종 폭력을 일삼았다. 거기까지는 비극적이게도 흔한 우리사회 성폭력 사건 중 하나였다. 달랐던 것은, 유례없이 많은 남성들이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연령과 직업, 지역 불문 수만 명에 달하는 남성들이 모니터 뒤, 익명에 숨어서 성착취, 성폭력에 가담했다. 이제 더 이상 '일부'라 선 긋고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남성들은 조심스레 혀를 차며, 저것은 '너무' 심했다고 말했으나, 그것은 뒤늦은 변명이고 반성없는 회피였다. 가해자를 악마화 하는 것, 그것은 우리사회의 문제를 일부의 일탈로 축소하고 자신의 안온한 세상에 변화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일 뿐이다. 이 '너무 심한'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진공 속에서 발생한 유별난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여성을 향한

멸시, 혐오, 강간을 놀이처럼 치부하고 피해자를 탓해 온 역사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해당 사건 이전에도 우리사회는 여성 연예인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의 불법촬영물을 이른바 ‘국산야동’이라고 부르며 죄책감 없이 시청하고 공유하는 일이 만연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수많은 업체가 불법으로 촬영, 유포 된 여성의 몸으로 부를 쌓았으며 수많은 보편의 남성들은 이를 통해 우정을 다지고 남성연대를 공고히 했다. 혹여나 이에 문제를 제기해도, 가해자에게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그러게 왜 그런 영상을 찍었냐’며 책임전가 하기 일쑤였다. 그렇게 우리사회의 왜곡되고 뒤틀린 욕망은 기어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만들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추적단불꽃을 비롯한 수많은 페미니스트의 분노와 부단한 노력이 사건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언론에서 주목하고 시민들의 분노가 해일처럼 일자, 미온적으로 굴던 공권력도 그제야 부랴부랴 움직였고 자신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기고만장하던 가해자들이 속속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근본적인 수요부터 뿌리 뽑기 위해 시청가해를 처벌하는 법이 보완되었고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삭막하고 잔인한 현실에서도 이런 변화를 보며 희망을 찾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잡힌 가해자는 전체 중 극히 일부이고, 이루어낸 변화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이제는 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바로 남성들의 변화다.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제대로 질문하고 탐구해야 한다. 처벌 강화와 함께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어 온 남성연대와 그 문화 전반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한 목소리, 행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함페는 가장 먼저, 남성들의 섹슈얼리티에 질문을 던졌다. ‘남성들의 성욕은 컨트롤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위태롭기에 여성들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이다. 하지만 수많은 페미니스트가 성폭력 처벌법 개정 운동을 비롯한 활동으로 성폭력이 비단 성적인 욕구의 문제가 아닌, 젠더권력에 기반한 폭력임을 이야기해왔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가해자들은 사람과 또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시켰다. 허나 그 안에 ‘성적욕구’는 보이지 않고 그저 폭력과 지배욕, 여성을 향한 멸시와 혐오만 가득할 뿐이었다.

이들은 왜 폭력과 지배, 억압을 자신의 성적 욕구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왜곡된 성적 욕구, 남성성에 대한 갈망은 어디서 기인했는가? 남성들의 섹슈얼리티는 이미 흔하게 이야기되는 듯하다. 어디에서나 음담패설하는 남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게임과 영화, 만화 등 수많은 미디어에서 남성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있다. 허나 이것이 정말 남성들의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인가? 남성은 항상 섹스와 성욕에 환장하는 모습으로

그러진다. 실로 남자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갈 때면, 복도에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섹스”를 외치는 남자 청소년을 수두룩하게 만날 수 있다. 허나 동시에 이상하게도 기혼남성의 섹스는 ‘의무방어전’으로 이야기 되고 샤워를 하는 아내와 두려움에 떠는 남편은 흔한 유머코드로 쓰인다. 일상에서 발기부전이나 조루 등 섹슈얼리티에 고민이 있어도 이를 토로하는 남성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6.9’라는 한국남성의 성기 길이를 조롱하는 미러링 언어에는 누구보다도 발끈하며, ‘정력’과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다고 하면 장어부터 복분자, 각종 이름 모를 곤충과 식물까지 씨가 마를 정도로 먹어치운다.

남성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말들은 실체 없이 떠돌고, 그 안에 남성들의 실제 고민과 경험, 즐거움에 대한 탐구보다는 능력주의와 자격지심,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다. 이 남성들의 취약한 섹슈얼리티는 쉽게 왜곡되어 폭력과 결부된다. 허나 우리는 남성이 결코 동일한 집단이 아니며, 변화 불가능한 상수가 아닌, 시대의 변화에 공명하고 함께 운동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남함페는 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질문을 제시하며 문제의식을 확장하는 것이 견고한 남성연대에 발생하고 있는 균열을 더 크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미흡하게나마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탐구하고자 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활동을 기록하는 게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본격적인 연구활동의 문을 연다.

# 1. 연구 개괄

##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하는 1대1 심층 면접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청년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탐구하여 개인이 사회의 지배적 남성성과 불일치하는 지점과 사례를 정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적인 영역의 경험과 서사(연애 문제, 섹스 경험 등)를 충실히 담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심층 면접을 채택하였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면접 전 모든 참여자에게 질문지를 제공하여 개인의 경험과 정보를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연구원들이 직접 제작하였으며, 성평등 또는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현장 활동가들에게서 도움을 얻기도 했다. 질문지가 반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질문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되었지만, 질문을 변형하거나 제외하거나 새로운 질문을 현장에서 추가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명단은 연구원들의 주변 청년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평소 페미니즘을 알고 있거나 실천하는 그룹, 페미니즘에 관심이 없거나 소극적인 그룹으로 분류하여 섭외했다. 또한 면접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에게서 소개 또는 추천을 받아 명단에 포함한 사례도 있었다.

심층 면접은 면접 참여자가 편하게 생각하는 장소에서 실시했다. 참여자 거주 또는 활동 인근 카페, 스터디룸, 자택 등에서 진행됐으며, 평균적으로 1시간~2시간이 소요됐다.

## (2) 심층 면접 참여자 표

연번	이름(가명)	나이	직업
1	정윤	20대 중	대학원생
2	양원	20대 중	기자
3	덕운	30대 초	회사원
4	안태	20대 후	회사원
5	경욱	20대 후	강사
6	수현	30대 중	회사원
7	주현	20대 후	회사원
8	택조	30대 초	대학원생

### (3) 심층 면접 참여자 특성

심층 면접 참여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긍정적인 참여자들이 많았다. 연구원들의 지인에서부터 출발해 추천을 받아 명단을 구성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페미니즘을 알거나 실천하는 참여자들이기에 남성성에 대한 고민을 쉽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가진 청년 남성의 서사를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이번 연구의 명확한 한계점이다.

두 번째로 연애 경험과 성경험의 차이이다. 참여자들은 모두 다양한 경험을 다르게 가지고 있었다. 모집 단계에서부터 고려를 하기도 했지만, 심층 면접 진행 후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밀도의 경험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초점을 친구 관계보다 연인 관계에 맞췄다. 연구 기획 단계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경험을 범위로 설정했고, 면접 질문지 작성과 면접 실행도 그렇게 진행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들을 수 없었다.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친구 관계보다 연인 관계로 범위를 더 좁혀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 2. 심층 면접 분석

### (1) 달콤 씁쓸한 연애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자면 일과 사랑일 것이다. 그만큼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며 연애를 이어가는 것은 20대~30대 청년이라면 누구에게나 중요한 이슈이다. 심층 면접의 첫 질문 영역을 연애로 구성했다. 남함페는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여성의 연애보다 남성의 연애를 알고 싶었다. 청년 남성인 심층 면접 참여자들의 연애 모습과 그들이 겪었던 고민, 문제들을 청취하여 그 안에서 지배적 남성성을 경험하는 지점, 불일치했던 사례 그리고 새로운 남성성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 가. 연애 일반

심층 면접 참여자들의 연애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 사항을 물어보았다.



**질문1) 지금까지의 연애 횟수와 평균적인 연애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참여자들의 연애 횟수와 기간은 개인간 차이가 컸다. 한 번 연애를 했다는 참여자부터 8~9번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도 있었다.

**질문2) 연인을 주로 어떻게 만났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참여자들의 연애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학교에서 만났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직장 또는 동호회 등 기타 다른 곳에서 만났다는 답변이 적은 것은 참여자들 나이대가 주로 20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이하게도 답변들 중에 연인과 친구의 다른 점을 언급한 사례가 있다. 정윤은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친구로 만들고 어떻게 친구로 유지하는지 애매하다. (중략) 남자애들과 다니듯 똑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성애를 안느끼는 게 부럽다.”*며 연인과 친구 관계의 차이를 성애 욕구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슷하게 양원은 친구와 연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똑같이 친밀한 관계인데, 연인은 거기에 섹슈얼한 요소가 더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성간의 친구관계에서 성애 또는 섹슈얼한 부분이 가미되어진 존재를 연인이라고 여기는 답변이 존재했다.

**질문3) 이상형이 있다면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호감을 느끼나요?**

연인으로 원하는 이상형의 모습 또는 특질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참여자들의 답변에서 크게 두 가지를 발견했다. 첫 번째는 참여자들 대부분이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해요.”*식의 문장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면접 진행자가 과거와 비교해서 말해달라는 요청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상형을 추구하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지금보다 부족하거나 아쉽게 평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수현은 *“20대에는 초중반까지만 해도 자존감이 많이 낮은 상태라 나를 조금 끌어내줄 수 있는, 내가 좀 위축되거나 조금 수줍어서 드러내지 못하는 내 내면의 어떤 모습들을 이끌어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다. 또한 경욱은 *“바뀌어왔던 것 같다. 처음에는 이런 걸 잘 몰랐다.”*고 답변했으며 안테는 *“진짜 많이 바뀌었다. 사실상 원래 전혀 없었다.”*며 현재와 과거를 대비시켜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점 두 번째는 참여자들 중 절반이 사회통념상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여성상에 반대되는 모습을 이상형으로 꼽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매력적인 여성상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면을 강조해왔다. 또한 남성을 향한 헌신, 애교 등을 중시하는 모습은 TV프로그램이나 뉴스기사등을 통해 현재도 확인할 수 있다. 한 여성 아이돌 멤버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애교를 강요받아 눈물을 터뜨렸던 사건을 두고, 그것이 과한 반응이라는 이야기가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라인 상에서 퍼진 적이 있었다. 뉴스 기사의 차원에서는 헤드라인 제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 연예인의 드라마 캐스팅에 대한 기사 제목을 “~의 여자, OOO로 확정”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그러한 경우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바람직한 여성상을 종속적,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리는데, 면접 참여자들은 생각이 달랐다. 경옥은 “안길 수 있는, 안기고 싶은, 의지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응답했고 다른 참여자들도 이와 비슷하게 자신의 이상형을 밝혔다.

“저는 에너지가 넘치고 용감하고...(중략)...주도적이고 상대방의 먹살을 잡고 끌고 가는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다. 에너제틱하시고 주도적하시고 용기 있고 활발한, 에너지가 넘치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_택조

“이상형은 좀 당당한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했다. 자기한테 프라이드가 좀 있고 어떤 행동할 때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고 용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_수현

“저보다 육체적으로 센 사람한테 끌린다. 운동도 잘하고 정신적으로도 자기 말을 확실하게 잘 하는 사람. 강한 사람한테 끌리는 것 같다...(중략)...똑똑한 사람. 똑똑하고 강하고 몸 좋은 사람. 슈퍼우먼. 딱히 여성적이진 않고 저보다 오히려 더 남성적이었던 사람.”

\_정윤

정윤의 마지막 말에서 주도성과 지배성이 더 이상 남성성에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슈퍼우먼”이나 “저보다 오히려 더 남성적”이라는 문장을 통해, 남성들이 기존의 이상적 여성성과는 다른 여성성을 찾아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질문4) 연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어땠나요? 호감 표현, 고백은 누가 먼저 했나요?

연애 관계에서 남성에게 주로 기대되는 역할은 주도성과 적극성이다. 먼저 호감을 표시하고, 번호를 물어보고, 데이트를 제안하는 등의 행위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면접 참여자들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는지 물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고백이라는 행위를 자신이 먼저했다고 했다. 심지어 고백 이전 단계에서 호감을 표시하고 서로 감정을 확인하기까지는 파트너인 여성의 역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연인으로 관계를 확정짓는 고백은 남성인 자신이 했다고 응답한 사례가 많았다. 이는 연애 관계 안에서 전통적인 남성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늘 제가 먼저 고백을 했던 편인것 같다.”

\_덕운

“고백은 먼저 하는 편이 많았어요. 받은 편은 거의 없다.”

\_정윤

“사권 것은 자연스레? 근데 말을 누가 했느냐는 의미 없는 것 같다. 보통은 제가 하지 않을까? 사회적인 역할 때문에?”

\_안태

“고백은 제가 한 것 같고, 접근은 상대가 먼저. 저의 고백은 마지막에 확인하는 작업처럼.”

\_경욱

“저도 마음이 있긴 했는데 (파트너가) 먼저 용기를 내주니까. 공식화해서 얘기를 한 거는 제가 하게 됐다.”

\_수현

“제가 먼저 많이 좋아해서 했던 경험도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표현을 했을 때 제가 결정만 하는 결정타를 날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다.”

\_택조

한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심층 면접 과정에서 몇몇 참여자들이 연인으로 이어지기까지 호감을 표현할 때(플러팅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친구 또는 지인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전환되기 위해 고백이라는 역할을 기꺼이 수행했으나,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안태는 “(플러팅을) 진짜 못한다.”고 고백했고, 경욱은 “(플러팅을) 잘 못했다. 스무살 이후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모르는 게 많았다. 그래서 어떻게 다가가고 표현해야할지 몰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나. 연애의 기대와 현실

연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연애의 기대와 현실’이다. 면접에 참여한 남성들에게 연애를 하며 가장 만족했던 것, 힘들었던 것, 두렵거나 걱정했던 것 그리고 ‘남자다워야 한다’는 자각에 대해 물었다.

**질문5) 연애를 할 때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전통적으로 연애 관계 안에서 남성은 섹스에 대한 기대와 만족이 높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남성은 성적 욕망 충족, 여성은 돌봄이나 의지에 욕망이 강한 것으로 사회적 인식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접 참여자들의 답변을 정리해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참여자들은 감정과 시간의 공유, 상호간의 돌봄과 신뢰 등을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 꼽았다.

“그 사람과 나의 시간을 나란히 놓고서 계속 조율하는 것. 감정을 나누는 거니까.”

\_정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말하길,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고 한다. 남자가 연애할 때 가장 좋아하는 건 섹스라고. 근데 오히려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섹스를 정말 잘 즐기고 있는 남성이 얼마나 될까 싶다. 거의 없다고 느낀다. (중략) 오히려 남자들이 연애할 때 돌봄을 얻는 거에서 굉장히 큰 걸 느껴서 연애에 목말라하는 거 같다. 섹스는 환상이고 돌봄은 부재하다. (중략) 저 역시도 가장 좋은 건 지지받고 돌보는 거다. 나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다.”

\_양원

“내면의 이야기를 막 하는 사이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정리해서 하는 정도? 그래서 연애할 때 좋았던 건, 그런 표현이나 생각을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

\_경욱

“일단 전적으로 내 편이 생긴 것 같다. (중략)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 믿음이 완전히 들게 해주는 신뢰. 이런 걸 받아보니까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다. (중략)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좋았다.”

\_수현

“혼자 되게 외로워질 때, 누군가 정말 그냥 같이 있고 싶다는 느낌이 필요할 때 그걸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너무 다 좋았던 순간인 것 같다. (중략) 내가 불안정하고 힘든 시기를 건너가고 있을 때 옆에서 많이 응원을 해줬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

\_택조

추가로 연애의 만족감 측면에서 자기 발전을 또 하나의 요소로 꼽는 답변도 있었다.

“저희는 연애를 꽤 오래하다 보니까 서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좋았다.”

\_수현

“다른 인간관계를 좀 배울 수 있는 거? (중략)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다.”

\_주현

“이래서 하는구나 싶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개인과 좁혀나가는 과정이요. 그 과정에서 더 올바른 방향으로 좁혀나가지더라.”

\_안태

**질문6) 연애를 할 때 힘들었던 건 무엇인가요? 두렵거나 걱정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연애 할 때의 힘듦, 두려움, 걱정을 묻는 질문에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헤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언급했다. 또한 갈등을 적절하게 다루고 조율하는 것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했다. 우리 사회의 지배적 남성성에 따르면 연애 관계 안에서 헤어짐에 대한 걱정 또는 두려움은 주로 여성의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남성은 자신의 파트너를 안심시키고 확신을 주어야하는 의무를 지닌 존재로 여겨진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즉, 남성들도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한 헤어짐을 걱정하며, 그러한 결과까지 가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견뎌내기 힘들어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의 남성성과 지배적 남성성이 불일치하는 중요한 지점으로 보여진다.

“제 잘못, 제 결여, 연애 관계에서 제 불성실함으로 인해 연애 위기들과 연애의 끝들이 왔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 (중략) 불안정해지는 내 삶에서 제가 저 스스로 일상과 삶을 많이 정돈하는 스타일의 유형이 못되었다.”

\_택조

“첫 번째는 제가 관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 헤어질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중략) 헤어짐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스스로의 표현이나 생각을 잘 얘기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다.”

\_경욱

“한편으로 자연스레 의지하는데 그런 사람이 떠난다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있다.”

\_경욱

“연애 지속을 해야한다는 압박이 있었다. 내가 끊을 수 없고 (헤어지면)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막연한 두려움.”

\_안태

“직전 연애에서 두려웠다. 내가 의미 없는 사람이 될까봐. (중략) 그 사람은 나를 원오브뎀(one of them)이고 잊어버리는 관계일 수 있지 않을까.”

\_안태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닫아버릴까 두렵다. 연락이 어느 정도 안오면 버려질거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다. 떠나고 싶다는 것과 버려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항상 공존했다.”

\_정윤

“두렵고 관계가 단절되면 어떡하지 그런 것도 있었다.”

\_수현

“어려웠던 거는 리드해야 된다는 것들? 연애 조언 같은 것 보면 다 해야 된다고 나오고. 데이트 코스도 잘 알아봐야 되고 아니면 스킨십이나 알아서 잘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고. (중략) 가끔은 그런 주도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좀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럽고.”

\_주현

“상실이 두렵다. 단순히 이별이 두렵다기보다, 나의 일상을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이니까. (중략) 내 일상을 의탁하고 있던 부분이, 섬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 공허, 그 공백 같은 게 생기는 게 가장 두렵다.”

\_양원

**질문) 연애를 하면서 ‘남자다워야 한다’는 점을 자각하거나 느껴본 적 있나요?**

연애만큼 지배적 남성성이 침투하기 쉬운 분야가 또 있을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보고 자라온 모습, 친구와 지인등 주변 관계에서부터 습득하는 경험, 인터넷과 각종 매체들이 재현하는 남성성의 모습들까지. 연애와 관련한 남성성은 남성들의 삶에서 한 번도 떼어내진 적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심층 면접 참여자들 모두 남자다워야한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이 연인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덧붙였다.

“데이트 비용, 벌레 잘 잡아야 한다 같이 사소한 게 많다. 짐 옮기는 데 더 열심히 해야 한다던가. 백신 맞고 아픈 척 안하기, 운전면허증 없는 것에 대한 열등감 드러내지 않기. 아니면 너무 잘생긴 남자 배우 굳이 같이 보지 않기. (중략) 빨리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도 아마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얌혀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중략) 상대도 분명 가부장제에서 살았고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상대를 못 믿어서 더 남자다워야한다고 생각하는 듯 싶다.”

\_정윤

“페미니즘을 제대로 접하고 공부하기 전인 20대 초반이나 고등학교 때는 경제적으로 더 풍족한 상태여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신체적으로든 의사결정에 있어서든 통 크게 양보하고 강해야 한다는 맨박스가 있었다. 페미니즘 접하고 그건 많이 깨진 것 같은데. 여전히 어렵게 하는 건 섹스에 대한 문제다.”

\_양원

“운전을 할 때라던가, 데이트 비용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남자의 모습에 있어서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그 역할을 해낼 능력이 있고 충분히 해낼 의지도 있다.”

\_덕운

“섹스할 때는 서로 만족을 해야 하는데, 내가 만족을 시켜야할 것 같다는 압박? 뭔가 더 멋있어 보여야 할 것 같은, 마초 같은 느낌이 있어야 할 것 같고.”

\_안태

“듬직해야 하고 힘들 때 위로나 해결을 잘해주길 원했던 것 같다. 제가 소극적인 면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갈등도 있었다. 제가 적극적이고 외향적이어야 한다는 압박도 있어서. 듦직하지 못함에 대한 압박. 저는 그냥 저인데 상대방인 요구하는 것에 남자다움이 있고.”

\_경욱

“그런 압박은 스스로도 잠재의식이 있고 파트너한테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다. (중략) 남자는 항상 성욕이 왕성해야 할 것 같고, 항상 원하고 있는 상태여야 할 것 같고, 나한테 자꾸 찢러봐야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파트너도 하는 것 같더라. (중략) 좀 안 그래 보일 때 기분이 상하거나 하는 시기도 있었다.”

\_수현

“헤어지면서 (파트너가) 그런 얘기를 해서 나중에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헤어질 때 남자다운 게 없는 것 같다. 약간 아쉬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서.”

\_주현

“보통 남자답다고 하면 여러가지들에서 리드를 하는 스타일일텐데, 제가 했던 연애는 뭔가 애 같았다. (중략) 제가 엄청 마초적인 스타일이 아니니까 섹슈얼한 관계를 가질 때는 좀 더 폭력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거나. (중략) 상대방에게 완전히 정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도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인상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남성성과 관련된 걸 수행하기도 하는 것 같다. 운동을 좋아한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_택조

## 다. 정리

연애 관계에 대한 질문을 통해 찾게된 남성성의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심층 면접 참여자들은 지배적 남성성과 불일치하는 상황과 경험을 다수 이야기했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남성성과 다르게, 본인이 소극적인 관계에 놓여있음을 고백했다.

둘째, 이렇게 다른 남성성을 경험하는 참여자들은 연인과의 관계에서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사회적 기대와 본인의 압박감뿐 아니라, 파트너로부터 받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지배적 남성성의 경향과 다른 남성성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지배적 남성성에 귀속되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김엘리의 연구<sup>1</sup>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존의 젠더 질서를 경험하고 성찰하는 자아와 사회적 승인 과정을 통해 남성으로서 인정받으려는 청년 남성의 또 다른 자아가 분열하며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배적 남성성을 수행하고자 하는 면접 참여자들의 노력을 단순히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한계점으로만 지적할 수 없을 것이다.

## (2) 남성들의 섹스 말하기

우리사회에서 성은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터부시되는 주제다. 그나마 최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쿨하고 멋진 것으로 이야기 되고 한편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부흥하면서 여성에게 덧씌워진 성에 대한 이중규범과 억압을 극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여성의 성 말하기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서, 성을 제대로 배우고 이야기 나눌 여지는 부족하다. 게다가 남성들은 최근 페미니즘 열풍에서 한 발 빗겨나 있는 관계로 더더욱 성에 대해 제대로 탐구하고 이야기할 여지가 부족했다. 물론 기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젠더권력은 그들의 성을 언제나 더 중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왔다. 허나, 그것은 성적욕구를 가진 성적인 주체가 어떻게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탐구하고 다른 성적 주체와 더 즐거이 성적으로 교감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남성들만의 성 이야기였으며, 그 또한 남성들이 성을 통해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성적 욕구, 성적인 관계맺음(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 사회적인 남성됨에 대한 이야기였다.

남함페의 질문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우리사회의 남성성은 권력을 지닌 알파 메일(Alpha male)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필두로 다양한 남성성이 공모, 묵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게 지금도 계속 굳건히 작동할까? 기부장제라는 거대한 권력의 힘이 가정과 개인의 의식 곳곳에 뿌리깊게 침투해 있고 기부장 권력은 많은 남성에게 크고작은 특권을 선사할테지만, 그렇다고 모든 남성이 기부장 권력의

---

<sup>1</sup> 김엘리, '20~30대 남성들의 하이브리드 남성성', 2020, 한국여성학 제36권 1호 pp.157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심지어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일로 성찰하는 남성 역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적인 관계 맺음’이라는 특수성이 더 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2015년 즈음을 기점으로 하여, ‘페미니즘 리부트’라 불리는 일종의 인식혁명을 맞이했고 그 시절을 살아간 수많은 청년에게 크고작은 충격을 안겼다. 특히 이 변화는 여성청년들에게 크게 나타나서, 2030 여성 청년은 절반 가량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고 있다. 꼭 스스로 페미니스트로 정체화 하지 않더라도, 페미니즘적인 이슈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과 상대적으로 접점이 많은 남성 청년 역시 곁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sup>2</sup>에서 20대 남성의 페미니즘 정보 접촉 경로를 물어봤다. 이때, ‘적대적 성차별/반페미니즘’ 성향의 경우 ‘신문과 TV 방송’(54.4%), ‘온라인 커뮤니티와 1인방송, SNS’(42.1%)가 가장 많았던 반면, ‘반성차별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주변인으로부터(63.2%), ‘강의, 소모임 활동’(50.0%)이 제일 많았다.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 밀도높고 친밀한 관계가 페미니즘을 전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유추할 수 있다. 실로 남한페의 지난 두 차례의 연구활동 경험<sup>3</sup>에 따르면, 페미니즘을 접한 많은 남성들이 그 계기로 주변 조력자의 존재를 꼽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페미니즘을 통해 영향을 받은 남성청년들에게 성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 기존 가부장적이고 여성혐오적인 사회에서 남성의 성은 늘 과도하고 과장되게 묘사되었고 여성은 자주 성적으로 대상화 되었다. 이는 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 재생산되어 실로 남성과 섹스는 불가분의 관계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사회에는 기혼 남성의 섹스를 ‘의무방어전’이라 부르며 두려워하거나 기피하는 이중적인 모습 역시 보인다. 이를 어찌면 자신의 남성성(언제나 섹스할 수 있고, 섹스를 지켜워할 정도로 많이 경험함)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남성연대의 위계질서에서 은연 중에 자신의 두려움, 열등감을 희화화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페미니즘을 통해, 혹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고 있지 않더라도, 페미니즘이 만들어놓은 변화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성청년들은 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페미니즘적으로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목소리를 들어보자.

## 가. 첫 성관계에 대한 기억

<sup>2</sup>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변화하는 남성성과 성차별’, 2019

<sup>3</sup> 김선해, 이한, <페미니즘, 남성을 조립하다>, 학이시습, 2022

‘첫경험’이라는 단어는 딱히 무엇을 지칭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미 은연 중에 첫 성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우리사회가 성을 터부시하면서도 동시에 성에 대한 환상이 덧씌워진 결과다. 성에 대해 보수적인 우리사회는 특히 여성의 첫 성경험에 더 유난이어서, ‘처녀막’이라는 신화와 혼전순결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냈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다. 남성에게도 첫경험을 둘러싼 유난이 전혀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바로 얼른 제거해야할 종기, 낙인 같은 형태로 말이다. 남자의 첫경험은 소위 ‘동정’으로 불리며, 몇 살까지 동정을 떼지 못하면 마법사가 된다는 자조적 농담이 여전히 통용된다. 실로 남성 사회에서 성경험은 권력이고 동정을 떼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등떠밀려 첫경험을 하거나 심지어 주변 가까운 형들에 의해 성매매를 권유 받기도 한다. 이것이 지금 청년들에게도 통용될까? 이들에게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질문을 던져봤다.

### 질문8) 첫 성관계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서로의 성기에 대해서도 낯설었어서... 무작정 탐구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위험했던 것 같다. 그리고 겁에 질려 있었다. 안 그런 척 하면서, 다 아는 척, 할 수 있는 척 했지만, 그랬다. (중략) 전혀 야하지도, 흥분되지도, 좋지도 않았고 그냥 섹스를 해야한다, 관계를 가져야한다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다.”

\_양원

“해보자고 즐겼던 것 같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예상과 많이 달랐다. 좋긴 했지만... 엄청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지는 않고 약간 일방적이었던 것 같고 그에 대한 찻찻함, 의아함이 남아있다. (중략)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성인되면 하는거라고 하니까 했는데, 좀 등떠밀린 것 같아서 아쉽고 찻찻하고 미안하다.”

\_경욱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약간의 사인 미스가 있었다. (중략) 또 서로 처음이다보니 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뭐랄까 약간 달 착륙한 것 같이, 어려운 한 걸음을 디뎠지만 사실 그렇게 큰 성과는 아닌...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다”

\_수현

심층 면접에 참여한 이들 중, 첫 성경험을 즐겁고 아름답게 추억한 이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이들이 첫경험을 떠올리는 것 자체를 부끄럽고 어려워했다. 그것은 단지 옛 일기장을 들춰보았을 때 느껴지는 부끄러움과 달랐다. 조급한 마음과 서툰 행동, 그로 인한 상대에 대한 미안함, 아쉬움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등떠밀려 행동한 이유가 단순히 날뛰는 호르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빨리 첫 성경험을 해야한다는 어떤 “강박”과 압박감이, 또 성관계가

엄청날 것이라는 환상이 있었다. 이는 앞서 말했던 남성들의 ‘동정’에 대한 낙인과 성을 터부하면서 환상화하는 문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첫 단추는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다.

## 나. 섹스에 대한 이상과 현실

그렇다면 이들의 평소 성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흔히 청년남성이라고 하면 성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성생활을 떠올린다. 과연 이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모습인지, 이들의 섹스를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 질문9) 당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섹스는 어떤 모습인가요?

*“기본 전제는 사랑. 정서적 유대가 있어야지만 그 관계가 즐거운 것 같다. (중략) 원나잇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욕구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았던 경험, 아주 개운했던 경험은 사랑하는 사람과 했을 때.”*

\_덕운

*“상대가 만족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남자는 섹스할 때 별로 정신적인 교감에서 더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서, 상대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상대방이 만족하는 것. 그에 맞춰 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다”*

\_주현

*“가장 이상적인 섹스는 안 해도 되는 섹스인 것 같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만약 하게 된다면, 정말 잘 준비하고 준비물을 다 챙겨서 서로 마음과 경력도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서로 탐구하고 안전하게 유대감을 쌓고 하는 게 아닐까. (중략) 근데 사실 잘 모르니까 더더욱 양적지표를 자꾸 신경쓰게 된다. 그로 인해 즐거움도 떨어지는 듯 하다”*

\_양원

많은 이들의 통념과 달리, 섹스에 대한 남성 청년들의 의견은 제각각이면서도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 됐다. 개중에도 흥미로운 대답 몇 개만 꼽아서 이야기 해보면, 연구 참여자 양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섹스의 모습으로 “안 해도 되는 섹스”를 꼽았다. 이는 섹스가 연인 관계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큰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연인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 중 하나로 섹스가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들에게 섹스는 단순히 자신의 성적만족만을 위함이 아닌, 관계를 돈독히 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관계맺음의 한 과정으로서 이해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좋은 섹스’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고민할 여지가 부족한데다가 성적인 능력이 곧 남성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흔한 클리셰로 섹스 후에 “좋았어?”라고 애써 묻는 남성이 등장하는 장면은 여전히 관계

내에서 반복된다. 이는 여성을 향한 성에 대한 엄숙주의가 여성 스스로 섹스를 말하기 어렵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 더해 여전히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성적 능력을 자신의 남성성과 결부하고 있고 섹스를 향한 일종의 능력주의(섹스를 오르가즘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팀 프로젝트로 바라보는 시선)가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이상과 현실은 늘 다르기 마련이라, 이상적으로 그리는 섹스와 함께, 이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섹스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더했다.

#### 질문10) 평소 섹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만족감이 보통은 낮았던 것 같다. (사정을 하며) 오르가즘을 느끼는 순간에도 내 정액이 콘돔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다보니 즐기기도 어렵고, 하는 와중에도 내가 만족시켜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즐거움을 잘 못느낀다”

\_정윤

“내 파트너인 여성분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나 스스로 잘 느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중략)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온전히 즐기면서 또 성과(상대의 오르가즘)까지 낼 수 있을까?”

\_양원

“만족도가 낮다. 왜인지 모르겠다. (성관계를) 하기 전까지는 되게 하고싶은데, 막상 시작하는 순간 만족도가 줄어든다. (중략) 뭔가 귀찮고,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_안태

#### 질문11) 섹스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10으로 잡았을 때, 당신과 파트너의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7대3 아니면 8대2.”

아직 그런 걸 여성이 주도적으로 하기에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콘돔 사는 것도 꺼리고 모텔 예약하는 것도 당연히 남자가 해야지,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다.”

\_주현

“수치화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도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제 경험상 상대에게 좀 더 맞췄다. 상대가 힘들다 하면 그만하고. (중략) 그럼에도 제가 좀 더 예민하게 상대의 요구에 따르거나 리드하는 등 신경쓰는 것 같다.”

\_경욱

“그리고 보니까 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좀 억울하다.(웃음) 9대 1 정도 같은데. 파트너도 (여성을 향한)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중략)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좀 더 예민한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다.”

\_수현

위 응답에서 살펴볼 수 있듯, 많은 남성들이 섹스 과정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음에도 섹스에 대한 만족감은 그리 높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연구활동을 기획, 진행하며 가장 궁금하고 흥미로운 대목이라 생각했다. 기존의 통념에 따르면, 많은 남성이 섹스에 집착하거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만족감만을 쫓아서 문제가 될 것으로 유추했다. 사실 이는 어찌면 당연한 모습이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남성이 성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순일 것이라 유추되기 때문이다. 허나 이번 심층 면접에서는 (흔히 안정적이고 독점적인 성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기혼 남성에게서도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남성이 대부분 더 많이 섹스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시대적인 특성일까? 아니면 성적인 면에서만큼은 여성이 더 특권적 위치에 있는 것일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성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퐁퐁남’ 이야기는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하는 설명처럼 보인다. ‘퐁퐁남’은 여성에게 잡혀살며 경제권을 빼앗기고 가사노동을 도맡는 기혼남성을 조롱하는 것에서 비롯된 말이다.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여성 배우자를 존중하는 기혼남성의 당연한 태도를 애처가라고 띄우거나 ‘붙잡혀 산다’는 식으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문화는 이전에도 있었다. 막상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 시간은 여전히 여성이 두 배 가량 많은 이 현실에서 대체 ‘퐁퐁남’이니 하는 말은 왜 등장한 것일까? 퐁퐁남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얻고자 하는 건 (늘상 해왔던) 여성에 대한 멸시와 더불어 남성연대 내에서 여성과 교제로 성적인 ‘자원’을 가졌다고 여겨지며 더 우월한 위치에 놓이는 남성을 깎아내리기 위한 한 방안이다. 즉 다시 말해, 이들에게 섹스는 성적인 교감이기보다 남성연대 내에서 권력을 갖기 위한 수단, 자원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섹스에 있어서 더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이유는 사회적 낙인이나, 폭력에 대한 두려움, 예상하지 못한 임신 염려, 교감의 문제가 아닌, 성적인 자원의 문제로 바라본다.

다시 면접 내용으로 돌아와서, 위 참여자들의 이야기 중,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성적인 만족감이 높지 않고 그럼에도 그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남성들의 섹스 이야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늘 정량적으로 측정될만한 것, 예컨대 성기 길이, 발기시간, 사정 횟수, 섹스 파트너의 숫자였다. 정작 자신이 어떤 것에 성적인 흥분을 느끼고 어떤 스킨십을 좋아하며, 어떤 섹스가 하고싶은지 등 자신의 몸이나 욕구에 대해서는 그저 미디어에서

등장하는 피상적인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잘 등장하지 않았다. 남성들이 자신의 몸과 성적욕구에 대한 탐구하지 않았던 것이 위 참여자들을 비롯한 많은 남성이 섹스에서 금세 싫증을 느끼고 기피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 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공허한 시도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 질문12) 섹스가 하기 싫었던 적, 불만족했던 적은 없나요?

“분명 있다. 피곤할 때, 안 섰던 적(발기되지 않았던 적)도 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안 섰다. (그래도) 어떻게든 했다”

\_안태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상대가) 조금 섭섭해 하더라. 괜히 거기에 ‘내가 매력이 없냐’, ‘사랑이 식었냐’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잘 이해하고 대화하면서 지나간다”

\_수현

“상대가 스스로의 욕구만 풀려고 했던 섹스를 한 적도 있다. 거기에 맞춰준 기억밖에 없다. 불만족했지만 표현하지는 않았던 듯 하다.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아직도 잘 모르는 듯 하다.”

\_경욱

섹스 경험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단연 체력적인 문제였다. 섹스에 따르는 신체 움직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체력이 뒤따라주어야 할텐데, 다양한 이유로 그것이 따르지 못했을 때, 많은 남성들이 안태의 경우처럼 어떻게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한다. 이는 자신의 남성성과 결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현의 이야기처럼, 섹스가 곧 사랑으로 통칭되어 상대가 오해하거나 실망할까봐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중에는 모든 관계맺음의 모습이 그렇듯, 불만족스러운 섹스를 경험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경욱을 비롯한 많은 남성이 이를 잘 이야기하지 못한다. 섹스가 사적이고 내밀한 주제이기 때문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모든 섹스를 환영하는 것이 남자의 자세로 여겨지는 문화도 한 몫할 것이다.

한편으로 섹스를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앞서서도 솔하게 나온 이야기가 있다. 바로 ‘부담감’이다.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봤다.

**질문13) 파트너를 성적으로 만족시켜야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늘 있다. 상대를 만족시켰을 때, 내 쾌감이 더 있는 듯 하다. (중략) 때때로 어려울 수 있고 부담도 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잘 넘어갔던 것 같다.”

\_덕운

“이상적인 섹스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만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_주현

“모든 것에서 만족시켜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물어본 적도 있다. 어느 정도였는지, 몇 번째로 좋았는 같은 짜치는(부끄러운) 질문도 많이 했다. 어떤 연애에서는 사정이 너무 빨리 돼서 사정지연 콘돔을 사기도 했다”

\_안태

놀랍게도 모든 심층 면접 참여자에게서 섹스 과정에 부담감을 크게 느낀다는 유사한 대답이 나왔다. 남성의 사정이 곧 섹스의 끝으로 이야기되는 세상에서 수많은 남성들은 대안을 찾기 보다 어떻게든 사정을 늦춰서 섹스를 연장시키고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정지연 콘돔을 사용하고 마음 속으로 애국가를 부르고 탄생각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자신의 욕구만을 위하지 않음은 기특하지만, 여전히 섹스 능력을 곧 남성성, 남자의 도리로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그럼 다양한 이유로 섹스가 유쾌하지 않거나, 아니면 더 즐겁고 행복한 섹스를 위해, 이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질문14) 섹스에 대한 생각이 맞지 않거나 하고 싶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불만족 했던 적은 없나요?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부끄럽고 잘 몰라서 생각을 공유하지 못했다. 또 한편으로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섹스 얘기 자체를 회피했다. (중략) 그리고 대다수 많은 경우는 그냥 하면 좋지라고 생각했다.”

양원

“잘 맞았던 기억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뭔가 어색하고 잘 안되고... 그럼 그냥 어쩔 수 없지 했다. 조율하려는 시도는 잘 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말하긴 하지만 잘 못알아 듣더라”

\_안태

“하기 싫다고 느꼈던 적이 있어도 20대 중반이 넘기 전까지는 하기 싫다고 말하는 건 되게 남자답지 못한 것이라 생각해서, 늘 하고 싶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늘 성관계를 갖고 싶어함을 보여줬던 것 같다. (중략) (파트너와) 자주 이야기를 한다.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찾기가 어렵더라.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진짜 현실적으로 부부 클리닉 같은 상담을 다녀볼까 그런 생각도 있다.”

\_택조

흥미롭게도, 섹스에 대한 어려움,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물어봤는데, 그 어떤 질문보다 섹스에 관한 남성들의 다양한 입장과 태도가 잘 드러나는 답변을 보여주었다. 어떤 이들은 양원이나 안태처럼 그냥 섹스하면 좋지, 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거나 불편해도 배려의 차원에서, 혹은 이야기하는 방법을 몰라서 완곡히 말하거나 참고 그냥 섹스 한다. 자신의 남자다움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섹스 하다가도, 다양한 이유로 섹스에 대한 관심, 횟수가 줄어들면, 그것이 곧 사랑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당연시하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왜 자신이 섹스하고 싶지 않은지를 잘 설명하는 이들은 흔치 않다는 것이다. 체력적인 이유 외에 섹스가 하기 싫은 이유를 명확히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원치 않아서 섹스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는 남성은 섹스를 좋아할 것이라는 우리사회의 고정관념이 참여자들과 참여자의 파트너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우리사회에서 남성을 향한 섹스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를 쉽사리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고정관념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다. 그 권력에 공모하여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만도 아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실재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 이러한 고정관념은 관계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해, 개인의 통념을 벗어던지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서 남성과 섹스에 관한 성역할 고정관념, 우리사회 남성을 향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자신과의 관계, 그 자신과 관계 맺는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복잡다단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의 지난함으로 인해 어떤 이들은 차라리 기꺼이 그 통념을 수행한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3. 개인적이면서 정치적인 섹슈얼리티와 관계

페미니즘 운동에 있어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구호는 여성의 재생산권과 성적 권리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적영역’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 의지로 극복해야한다고 말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 문제를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공적인



자원을 들여야 함을 말하며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게 했다. 그렇다면 이 구호와 페미니즘을 남성들이 경험하는 문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면접 참여자의 목소리에서 살펴볼 수 있듯, 우리사회의 가부장제와 여성혐오, 성역할 고정관념은 돌고돌아 남성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를테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참여자들의 남성됨 수행에 대한 압박감은 어떠한가? 이 엉켜버린 매듭은 개개인이 하나씩 풀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실로 그 수행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해가 되고 있는지를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이러한 문제들을 기록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이는 성차별적 사회에서 남성들도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을 드러내며 면죄부를 주고 남성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성차별이 만들어내는 문제를 직시하며, 페미니즘이 만들어내는 변화와 남성연대의 균열을 발굴하고 확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섹슈얼리티가 지금까지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페미니즘 운동을 통한 변화가 어떻게 기존의 남성성과 불화하고 있는지 그 균열을 조명하려고 한다.

## (1) 내게는 너무나 무거운 섹슈얼리티와 관계

지금까지 심층 면접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을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여전히 강력한 남성연대의 영향력이다. 여전히 많은 남성들에게 남성다움을 증명하는 것은 일종의 생존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도 다행히 사회는 조금씩 변해서 남성이 생계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던가, 감정표현을 해서는 안된다던가 하는 식의 남자다움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크게 작동하는 지점이 있다. 바로 남성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남성연대의 위계질서는 이러한 남성됨 수행 압박을 강화한다. 페미니즘이 여성 청년, 청소년에게 큰 변화를 만들고 있지만, 불행히도 남성들의 변화는 아직 더디다. 남성 4명 중 3명은 페미니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갖 커뮤니티, 게임에는 여성혐오가 주류의 생각처럼 자리하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 각종 미디어는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뛰어난 남성의 모습을 성공한 남성상으로 그려낸다. 남성연대의 위계질서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선망하며 따르거나 그에 공모하지 않는 이들을 남성 밖의 존재(여성, 트랜스젠더, 게이, 장애인 등)로 부르며 폭력과 소외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이러한 탈락의 공포와 위협에서 마땅한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둘째, 성역할 고정관념과 그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려 해도, '섹슈얼리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페미니즘을 접하고 많은 성찰과 해방감을 번갈아 경험했다. 그 과정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개중에도 제일 어려움을 겪는 지점은 바로 '섹슈얼리티'에서였다. 남성의 특권을 인지하고 학교나 사회에서 나의 행동과 언어를 고치는 건 차라리 쉬웠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매력을 어필하고 호감을 전달(플러팅)할 것인가. 근육질의 몸을 뽐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데이트 할 때 돈을 더 쓰는 등 연인 관계에서 하는 행동은 기존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그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기존 가부장 문화가 만들어낸 왜곡된 섹슈얼리티를 과감히 모두 내팽개 칠 수 있을까? 어디부터가 성적주체의 선택이자 취향이고 어디부터가 문제의 재생산인지를 구분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건 비단 용기와 결단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아가 섹슈얼리티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와중에 상대에게 자신의 의중을 진실하면서도 매력있게 전달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오해하지 않을까,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각종 염려 속에서 설렘과 성적 긴장은 짜게 식기 일쑤였고 많은 이들은 차라리 기존의 섹슈얼리티에 쉽게 편승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서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눌 언어와 장소가 없다. 이에 대한 면접 참여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옮겨 적는다.

*“주변에 (섹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 일단 여자인 친구들은 남자인 저를 믿지 못하고, 남자 애들은 과거 섹스 얘기를 할 때도 섹스가 어땠다는 게 아니라, 누구와 했다, 얼마나 많이 했다, 이런 류의 이야기가 위주였다. (중략) 나도 섹스 이야기를 하면 그 대상을 내 소유물로 삼고 대상화하는 것 같아서...”*

*\_정윤*

정윤을 비롯한 모든 면접 참여자가 섹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사람이 전혀 없거나 오직 파트너 하고만 이야기 나누는다고 응답했다. 섹스를 터부시하는 우리사회의 문화를 고려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 먼저 아무리 친한 남성이라 하더라도 섹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기시되고 선을 넘는 행동으로 지적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친구의 파트너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비롯한 남성들의 여성혐오 문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이 학습된 결과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여성들과는 어떨까? 먼저 이성애 중심주의라는 장벽이 있다. 껌잇 하나 짚는 것도 여지를 주는 것으로 여겨져 질투의 이유가 되는 세상에서, 같이 섹스를 이야기하기란 너무나 어렵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 남성들의 여성혐오 문화가 만연하고 여성에 대한 보수적인 성규범이 여전한 현실은 더더욱 여성과 남성이 함께 성을 이야기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장벽들을 다 넘어서,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대화할 기회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서로 다른 성별의 존재로 살아가며 경험하는 섹슈얼리티가 너무 다르다는 것 역시 대화가 어긋나게 하는 큰 요소 중 하나다. 이를테면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도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페미니스트 여성과 섹스를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 그냥 고개를 끄덕이거나 듣는데 그친다. 그 이야기가 임신, 성폭력, (여성에게 더 취약하고 치명적인) 성병에 대한 염려 등 그 이야기가 젠더권력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아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안타까움을 표하는 정도로 그친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남성 페미니스트를 만나서 안전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연애, 섹스, 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단 인원을 모으는 것부터 쉽지 않겠지만, 간신히 사람을 모으더라도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잇따르는 의심의 눈빛 (연애 하려고 페미니스트인 척을 하는 것이다, 여성 페미니스트는 재생산권, 성차별과 성폭력 등 거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남성들은 ‘고작’ 연애 따위나 고민한다) 이 먼저 떠올라 지레 겁먹기 십상이다. 그러니 애당초 모인 적 없고 이야기 나누어본 적 없기에 이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언어는 빈약하기만 하다.

## (2) 새로운 주체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최태섭은 자신의 책 <한국, 남자>에서 “새로운 주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형성되는 사회적 과정에 개입하고 그 과정을 바꾸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sup>4</sup>고 했다. 남함페 활동에 있어 큰 위로와 방향이 된 말이다. 페미니즘 운동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주체가 등장했다. ‘나는 여성이 아니란 말입니까?’라는 외침으로 페미니즘 운동에 있어 흑인 여성이라는 주체를 전면에 등장시킨 소저너 트루스처럼 말이다. 남함페는 남성성을 고민하고 남성이라는 젠더를 경유하는 이들이 페미니즘 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의식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그 시점을 조금이나마 앞당기기 위해 섹슈얼리티 탐구를 시도했다.

---

<sup>4</sup> 최태섭, ‘한국, 남자’, 은행나무, 277쪽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것이 많은 남성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라는 것도 이 주제를 선택한 부정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허나 그 흥미만이 전부는 아니다. 핵심은 그 흥미 아래, 여성청년들과 겪는 갈등, 문제가 있었다. 실로 많은 여성청년들이 비연애, 비혼, 비섹스 등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청년들이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 내에서 무수히 많은 폭력과 차별 문제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섹슈얼리티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남성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탐구는 남성연대를 이루고 있는 여성혐오와 호모포비아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한다. 남성들이 '섹스'를 외쳐대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여 남성연대의 위계질서에서 상층부에 자리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허나 그 '섹스'라는 외침에 '누구'는 없다. 여기에서 섹스는 성적 주체가 서로 만나 섹슈얼리티를 탐구하며 교감하는 관계맺음이 아닌, 남성성을 과시하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반향 없는 공허한 섹스의 외침은 남성성 증명이라는 부담만 안겨줄 뿐 외로움을 해소할 수 없다. 게다가 남성연대 기저에 깔려있는 호모포비아는 섹스 바깥에 존재하는 일상적인 돌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자신의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탐구마저 어렵게 한다.

남성들의 섹슈얼리티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남성들 역시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복잡한 고민 앞에 정체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을 터부시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하는 사회에서 남성들의 성 이야기는 곁돌았다. 행위 페미니즘을 접하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관심을 가져도 동료와 언어가 부족하다보니 이야기는 뻘어나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했다. 이렇게 답답한 현실 앞에 이들이 주저앉거나 뒷걸음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직 답을 모른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확실한 방법을 제시할 감량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만 명확해진다. 다만 우리에게는 더 많은 레퍼런스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대답 대신,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그래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답답한 문제들에 더 많은 질문을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지금 당신에게 섹스는 무슨 의미인가? 우리사회에서 남성성은 어떻게 섹슈얼리티와 결부하는가? 남성이라는 젠더를 경유해서 페미니즘에 다가갈 때, 우리의 섹슈얼리티는 얼마나, 어떻게 더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이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다.

## 4. 나가며: 연구자의 말

### 연구자 이한의 말

‘남성 섹슈얼리티 탐구’는 개인적으로 몇 해 전부터 꾸준히 관심 갖고 이야기 해오던 주제다.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고 페미니즘에 있어 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믿었기에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기어코 또 썼다. 그 과정에서 복잡하게 떠돌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 좋았다. 이 활동을 토대로 앞으로도 계속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탐구하며 더 많은 사람과 접점을 만들어보고 싶다.

감사한 사람들이 참 많다. 막연한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건 다분히 마중물을 부어 준 청년허브 덕분이다. 또 서툴고 부족한 연구활동가의 질문에 가감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 준 8명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고민해준 남함페 김태환 활동가가 있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다.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지점도 많고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욕심에 비해 소박하기만 한 나의 역량 문제다. 조금 더 변명하자면 고질적인 자원 부족 문제가 있다. 활동판의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결정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있었다면 우리의 활동은 얼마나 더 달라질 수 있을까? 주변에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는 활동가가 있다면 남함페의 문을 두드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고, 지금 우리의 부족함이 좋은 거름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연구활동을 하며 부족했던 점을 남긴다.

먼저 정확히 페미니즘이 이들의 섹슈얼리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이야기를 참여자의 입에서 직접 듣지 못한 게 아쉽다. 페미니즘을 접한 남성과 그렇지 못한 남성을 따로 모집하고 이야기 들었다면 그 차이에서 더 다양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다양한 성적 지향을 반영하지 못한 것도 큰 한계라 생각한다. 남성들의 협소한 섹슈얼리티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큰 장벽인 호모포비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점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참여자의 섹슈얼리티를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 연구를 기획할 당시에는 불필요하고 불편할지 모른다는 염려로 많이 생략했으나, 이후 참여자의 목소리를 살펴보면 그 불편함을 넘는 과정에서 더 유의미한 내용이 담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를 했다.

마지막으로 집담회를 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연구도 중요하지만, 연구된 내용을 전달하는 자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 중간쯤 심층 면접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연구가 끝날 때쯤 마지막으로 보고서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자리가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남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환류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자리가 없었던 게 아쉽다. 이후에라도 자리를 만들어보고 싶다.

쓰다보니 아쉬움은 끝이 없고 하얀 종이는 너무 작아서 이제는 진짜 마무리를 해야겠다. 아무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땅을 다져준 앞선 페미니스트와 함께 발맞추며 걸어준 동료 페미니스트,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후세대 페미니스트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 모두 함께 오래오래 활동했으면 좋겠다.

### 연구자 김태환의 말

이번 연구는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했다. “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영원한 친구는 없다고 할까?”. 사소해보이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던 생각은 남성의 연애와 섹스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고, 결국 연구라는 방법을 통해 남성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됐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남성이 정말 연애와 섹스에 있어 당당하고 주도적인 면만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남성성에 대한 의심으로 전환된 셈이다. 그래서 심층 면접을 기획했고, 그래서 청년 남성들을 만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본문에 담지 못했지만, 심층 면접을 분석하며 나름대로 발견하게 된 것을 여기에 써보고자 한다. 심층 면접 참여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연애와 섹스를 이야기하며 현재와 과거를 비교했다. 면접 질문지를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고, 면접 진행을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참여자가 과거의 자신을 부족하고 뭘 모르는 존재처럼 여겼고, 현재의 자신을 훨씬 더 깨달은 존재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 계기가 됐던 특정 사건이나 깨달음의 순간을 공유해주기도 했다. 참여자 중 한 명은 시즌1을 연애로, 시즌2를 사랑으로 이름 붙이기도 했다. 다음 표는 이러한 발견을 보기 좋게 정리한 것이다.

참여자들의 연애 경험				
시즌1 : 연애		사건		시즌2 :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안감</li> <li># 두려움</li> <li># 불안정</li> <li># 파트너에게 맞춰주기</li> <li># 섹스까지의 노력</li> <li># 지배적남성성</li> <li># 남성다움</li> <li># 20대 초중반</li> <li># 연애 횟수 적을 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배적 남성성의 균열</li> <li># 깨달음</li> <li># 배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등한 관계</li> <li># 자기인식</li> <li># 대화</li> <li># 대화의 실천원칙</li> <li># 지배적 남성성 혼재</li> <li># 하이브리드 남성성의 가능성</li> <li># 20대 후반 이후</li> <li># 연애 횟수 쌓였을 때</li> </ul>

시즌1에서 심층 면접 참여자들은 지배적 남성성의 압박을 느끼며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진 남성성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남성성의 수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헤어짐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불안정성을 동시에 경험했다. 이후 특정 사건이나 깨달음의 순간을 지나가면서 참여자들은 변화했다. 파트너를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평등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대화'를 주로 언급했다. 실제로 면접 참여자들 중 절반 이상이 면접 과정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파트너와의 특별한 대화 원칙(ex. 집에 들어가기 전에 서운한 것을 모두 대화로 풀기, 가족 회의하기 등)을 세우고 실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남성들의 섹슈얼리티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자기 경험에 맞춰 계속 변화하고 있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발견이 있다. 면접 참여자들의 연애 경험 단계가 시즌2로 넘어갔다고 해서 지배적 남성성으로 인한 압박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전히 참여자들은 사회에서 요구받는 남성성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파트너로부터 남성성의 모습을 요구받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한 참여자는 "상대도 분명 가부장제에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를 "평등함을 기초로 파트너와 교류하지만, 결국 남성성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남성들"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연구를 진행했던 입장에서는 다르게 바라보고 싶다. "지배적 남성성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남성성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남성들"이라고. 남함페가 이번 연구를 통해 만났던 청년 남성들은 대안적 남성성을 찾아나가는 여정 길에 이미 올랐던 셈이다.

끝으로 연구를 함께 진행한 이한, 이풍현 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 특히 속기록을 제작하고 녹취록을 정리하고 코딩까지 도와줬던 김대연 님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건네고 싶다. 함께하는 활동가들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힘내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새삼 추워진 날씨를 온몸으로

느끼며 연구 결과에 대한 아쉬움은 내년에 하게 될 새로운 연구에 살포시 얹혀두고, 이제 남성 페미니스트들과의 시끌벅적한 연말 모임을 즐기러 가야겠다.



## 남성 섹슈얼리티 현실 말하기

: 지배적 남성성과 불화하는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펴낸날** 2022년 12월 5일

**펴낸곳**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연구원** 이한, 김태환, 이풍현

**페이스북** [www.facebook.com/feminismwithhim](http://www.facebook.com/feminismwithhim)

**지 원**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2022 청년허브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본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2022 청년허브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